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 선정

군산시 청년뜰, 국비 3200만원 확보... 8~11월 청년 대상 6개 세부 프로그램 진행

군산시는 2일 청년뜰(군산시 청년센터·창업지원센터)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과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 공모한 '2023년 지역특화 청년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지역 청년자원 현장 일선에 있는 청년센터가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공모에 청년뜰은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와 연계해 '청년과 로컬 at 군산'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안, 3,200만원의 국비 예산(사업비) 지원금: 2,000

만원 ~ 최대 3,5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223개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청년센터 중 호남·제주권역에서 5개 청년센터가 선정됐다.

청년뜰에서 공모 선정된 프로그램은 흰 찻살보리와 같은 지역 특산물뿐만 아니라 근대역사 관광 명소 등 군산의 자원을 적극 활용, 우리 지역 고유의 매력을 재조명하는 체험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사업은 △지역 매력 개발견하기, △군산과 청년의 만남에 대하여라는 두 가지 주제로 6개 세부 프로그램이, 13회에 걸쳐 총 150명을 대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오는 21일부터 모집을 시작할 예정으로 자세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년뜰 홈페이지(<http://gyouth.or.kr/>) 또는 대표전화(063-471-155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군산 로컬브랜드 청년창업가를 발굴해 역량 강화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동시에, 청년 참여자에게는 지역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뜰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0일(6일 제외)까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여한 세계 청소년들에게 1400여년 전 백제 왕궁을 선보인다.

익산시, 세계유산 도시 이미지 기대

백제왕궁박물관 · 왕궁리유적... 세계잼버리 영외과정활동 '인기'

익산시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0일(6일 제외)까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 참여한 세계 청소년들에게 1400여년 전 백제 왕궁을 선보인다.

세계문화유산인 왕궁리유적에서 백제왕궁 체험 공연 등 K-컬처의 새로운 역사문화 를 즐기기 위해 14개 시군 영외과정활동 중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전 세계 청소년 6400여명이 왕궁리유적을 찾아 백제왕궁을 소개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청소년들은 사리점점 만들기, 백제 의상을 입고 왕궁오층석탑 탑돌이 체험, 캘리그래피 진공부채 만들기 스크래치 페이퍼, 백제왕궁 타투, 죽간 서신체험을 하며 백제왕궁박물관과 가상체험관을 관람한다.

익산시립예술단의 풍물공연도 관람하고 공연에서 선보인 전통악기인 사물놀이 악기까지 경험해 볼 수 있다.

시는 그동안 K-컬처 역사가 한옥, 한복, 서울의 궁을 중심으로 소개되었다면 이번 세계잼버리 대회를 통해 외국 청소년들이 1400년전 아름다운 백제왕궁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 관점의 홍보와 백제왕궁 익산의 도시브랜드 가치향상 및 세계유산 도시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왕궁리유적과 백제왕궁박물관에서 청소년들이 즐거운 체험활동을 통하여 좋은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세계유산을 활용한 대외적 인지도 제고로 익산이 관광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한여름밤의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in 익산교도소

이달 6일까지 진행... 6세 이상 입장 가능 · 콘텐츠 체험은 12세부터

한여름 밤 더위를 오싹하게 만드는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이 익산시 교도소세트장에서 펼쳐진다.

이색공간에서 실감콘텐츠 홀로그램을 연계해 공포를 배로 즐기는 이번 페스티벌은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해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체험을 선사한다.

공포 코스튬 콘테스트, 공포 음악회와 잔디광장에서 즐기는 공포영화 관람은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폐교를 활용한 공포의 수용소·면회실은 12세·15세·19세로 구분하여 다양한 홀로그램 공포 콘텐츠를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체험할 수 있게 구성했다.

MZ세대의 관심을 이끌 SNS 포토존과 공포 테마의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어둠의 푸드 코트 또한 눈길을 끈다.



여기에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홀로그램 전시 및 체험장, 홀로그램 네일 아트, 공포 메이크업 체험 부스 운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제공된다.

시는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하루 400팀(팀당 인원 제한 없음)을 기준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2관왕' 쾌거

군산시는 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개 부문(공시제, 우수사업 부문) 모두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일자리 추진실적을 평가해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사업 부문 2개 분야의 우수 자치단체를 시상, 우수시체를 공유·확산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지역 일자리 시상식이다.

시는 '공시제 부문'에서 일자리 자립도시를 비전으로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일자리 정책, △신산업 전환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 △소상공인과 연대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취약계층 대상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까지 전략별 일자리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고용위기 극복에 앞장선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고용위기로 무너진 자동차산업을 전기차 관련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미래신성장 동력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을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이끌어낸 점도 고용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로 소개됐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장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두고 있으며 시는 분야별 공모 선정과 인프라 조성에 힘써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복귀지원 등 일자리의 질(質)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세계잼버리 '홍보관 · 농특산물판매장' 운영

익산시가 오는 12일까지 부안군 하서면 일대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에서 익산 홍보관과 농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한다.

시는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인 154개국 4만3천여명 세계 청소년들에게 우수한 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을 홍보해 익산시를 세계에 알리고 추후 재방문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보관에서는 익산시로 여행가자'라는 주제로 세계문화유산인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을 필두로 보석박물관, 만경강길, 아가페정원, 국화축제, 서동공원, 비탈기비길 등 특색있는 관광지를 소개한다.

백제의상, 교도소복장, 가발 등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여 시의 관광캐릭터인 마룡이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구성하고, 경품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체험의 재미를 더했다.

또한 농특산물판매장에서는 멜론, 방울토마토, 고구마, 양파 등 우수한 농산물과 지역 농축산물로 만든 요거트, 누룽지, 식빵, 흑삼 등을 시식과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은 익산 농협 찹쌀떡을 시식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인기를 끌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시 홍보관과 농특산물판매장에 방문해주신 잼버리 대원들과 관광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미국 컬버시 방문

익산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이 국제 자매도시 미국 컬버시를 방문한다.

교류단은 우리시 청소년 5명, 학부모 대표 1명, 인솔공무원 1명 등 7명이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0박 12일 일정으로 미국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양 시는 1983년 자매 결연을 맺은 이후 올해 40주년을 맞이했으며, 2000년부터 매년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를 실시하여 총 155명의 학생이 홈스테이에 참여했다.

이번 방문 학생들은 홈스테이 기간동안 각 파트너 가정에 머물며 미국 가정문화 체험, 관광, 공연, 소니영화사 투어, 유니버설 스튜디오 방문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게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 관계기관 · 섬 주민들 해양쓰레기 수거

군산시와 관계기관 및 섬 주민들이 2일 새만금방조제 신시도·아미도 구간에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은 지난 1일부터 시작하는 새만금 잼버리를 맞아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해양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서 시청 항만해양과·군산해수청 및 군산시수협, 어촌계 그리고 섬 주민 등 80여명은 페이구 및 페스티로폼, 페비닐과 페플라스틱 등 약 1.5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해양쓰레기는 육상쓰레기와 달리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육지로 이동해야 하며 쓰레기에 염분이 있고 해양 동식물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 처리하는데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해양쓰레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장마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등 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